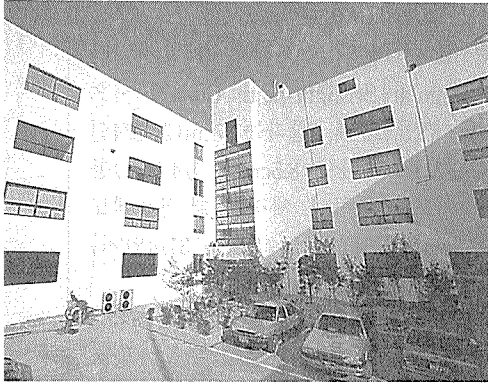


건협, 창립 30주년 맞아

11월 7일, 기념식 및 심포지움 등 행사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오는 11월 7일로 서른번째 생일을 맞는다.

지난 '64년, 당시 국민 보건 상의 심각한 문제였던 기생충 박멸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기생충박멸협회로 설립된 건협은 그동안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식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건협은 창립 당시 90%를 상회하던 기생충 감염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93년 현재 기생충 감염률 3% 미만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건협은 '82년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창립하고, 국민건강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한 비전염성 만성 퇴행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사, 보건계몽, 조사연구 사업 등을 전개하여

대 국민보건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이후 '86년 기협·건협을 통합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로 새롭게 자리잡은 건협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보건단체로서의 역할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인력·장비의 보강, 보건교육사업 강화, 보다 과학적인 학술연구 등에 주력함으로써, 국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보건예방사업기관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했다.

한편 11월 7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있을 3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기념식에 이어 국제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고 기생충관리 및 건강관리와 관련한 학술연구 보고 및 토의도 있을 예정이다.

또 이날 기념행사에는 서상목 보건사회부장관, 한상태 WHO 서태평양지구 사무처장, 구니이 조지로 동경예방의학협회 이사장, Dr. K.E. Mott WHO 기생충질환 관리국장, 박상천 국회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등을 비롯한 국내외 관련인사, 협회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있다.

건협은 이외에도 지부별 무료 건강검사 등을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李宗珍 건협 전회장 별세

지난 10월 19일, 숙환으로



李宗珍 한국건강관리협회 전 회장(3~5대, '67. 8~'72. 12. 이종진 소아과 의원장)이 지난 10월 19일 오후 10시 50분 국립의료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8세.

고 이종진 전 회장은, '39년 평양의전

을 졸업한 뒤 경성의대 등에서 근무하다가 '50년에 보사부에 들어 와 의무과장·의정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58년 국립의료원 초대 원장, '67년 한국건강관리협회(당시 기협) 회장, '72년 가족계획협회 이사장 등을 지내면서 보건·의료단체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발인은 10월 22일 오전 국립의료원을 출발하여 9시 30분에 연동교회에서 영결식을 가졌으며, 경기도 광릉의 연동교회 묘지에 안장되었다.

유족으로는 부인 오숙자 여사와 3남 1녀가 있다.

서울 시민에 무료 혈액형 검사

건협서울지부, 새마을 농산물 직매장서



한국건강관리 서울특별시지부는 지난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시민 무료 혈액형 검사를 새마을 농산물 직매장(화곡동 소재)에서 실시했다.

새마을 농산물 직매장과 공동 행사로 실시된 이번 무료검진에서는 246명의 서울시민이 혈액형검사를 받았으며, 혈액형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되었다.